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전후 초기 일본에서는 군부 비판과 '반전'의 규범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전물학도 유고집을 바탕으로 한 영화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를(きけ、わだつみの声)'(1950년)의 대히트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이는 일본이 GHQ(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 하에 있었던 것과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한편으로 '반전(反戰)의 울바름'은 전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과거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과 표리일체 관계에 있었다.

점령이 종결되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위화감으로부터 전시 경험 당사자의 복잡한 심정에 초점을 맞춘 전쟁영화('구름이 흘러가는 저 끝에서(雲ながるる果てに)', 1953년 등)도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에는 '무의미한 죽음'에 주목한 특공영화 '아아 동기의 벚꽃(あゝ同期の桜)'(1968년)도 만들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중파(20세 전반 종전을 맞이하고 전쟁에 가장 많이 동원된 세대)와 그 아래 세대 사이 '전쟁체험의 단절'이 관련돼 있었다. 무엇보다 세대 간 알력은 결과적으로 '가해'를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신문, TV 보도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이후,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国家護持運動)' 등 '사자의 현창'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자가 죽기 직전의 심정에 집중한 점에서 현창의 정치성을 거부하고, 국내외 책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지식인 언설 속에서도, 또한 전쟁영화('아아 결전항공대(あゝ決戦航空隊)', 1974년 등) 내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쟁영화와 동시대 지식인 언설을 대비하면서 '체험', '책임', '가해'를 둘러싼 논의가 탄생하는 배경과 더불어, 그 가능성,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후쿠마 요시아키 (福間良明 / FUKUMA Yoshiaki)

1969년, 구마모토시 출생. 1992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신문학 전공 졸업. 출판사 근무를 거쳐, 2003년 교토대 대학원 인간 환경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박사(인간 환경학). 카가와대학 경제학부 준교수를 거쳐, 현재 리쓰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교수. 전문은 역사사회학 및 미디어사.

주요저작: 『「戦争体験」の戦後史——世代・教養・イデオロギー』('전쟁체험'의 전후사:

세대·교양·이데올로기) 中公新書, 2009 년. 『戦後日本、記憶の力学——「継承という断絶」と無難さの政治学』(‘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 ‘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
作品社, 2020 년. 『司馬遼太郎の時代——歴史と大衆教養主義』(시바 료타로의 시대:
역사와 대중교양주의) 中公新書, 2022 년.